

2003 민족동아

18대 자/신/만/만 자주적 총여학생회

1년나기

● 순서 ●

총론

1. 17대 총여학생회 평가
2. 2003 정세전망

총여학생회 1년나기

1. 총기치
2. 11대 과제
3. 12대 주요사업

별첨 과여부의 1년나기

1. 17대 총여학생회 평가

2002년 총여학생회는 2여년 만에 부경여대협 지도력 구축을 내오는 과정에서 전체 중앙운영위에서 결의하고 단대 간담화사업을 통해 부경여대협과 총여학생회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한 해 동안 자주적 총여학생회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벌여왔다.

비록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바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성과점은 더욱 크게, 과제는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앞으로 총여학생회 이후 전망을 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조직사상적 영역>

1) 학습

학습에 대한 개인적으로 다들 의지는 있었으나 꾸준히 잘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소조도 자주 바뀌고 주체가 없어지면서 소조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나가기 위해 조종례 시간에 진행한 짧은 명언 학습과 여성학 학습은 학습에 대한 재미를 유발했다. 학습은 일꾼들의 열의와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전반 일꾼들이 학습에 대한 열의열정이 많이 부족하였다.

2) 간담회

2002년에는 여러 학생회와 함께 주체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간담회와 부경여대협 건설과정에서 진행한 간담회 그리고 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성과 있게 진행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많이 내어오진 못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후속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와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들을 점차적으로 높여냈다.

3)총여학생회 조직 운영 평가

* 생활- 전체적으로 조례가 잘 성사되지 않음으로 하루의 일정공유와 계획이 잘 정리되지 않고 활동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간부들과의 불신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 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야하는 총여학생회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이 많음으로 회의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아 상시적으로 틈틈이 진행하였고 회의진행자가 명확하지 않아 회의가 산만하고 여학생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계획, 여학일꾼에 대한 고민충화가 이루어지는 상집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여학일꾼 총화와 하방- 동아대 몇몇 되지 않은 여학일꾼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되지 못했다. 사업으로 사람을 되하기 이전에 같이 함께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지로서 인식하면서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한 것 같다.

4) 소모임

중앙 소모임으로 고민하였으나 주체가 없으면서 실제 소모임 고민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소모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내용과 활동에 대한 세부적 계획은 있었으나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여학생 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도(집단조례교양, 여 간부 학교)속에서 성과점을 많

이 찾게 되었다. 간담회의 성과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과 투쟁을 대할 때 여학생회 두리로 묶어내고 여학생 운동 주체의 발굴, 그리고 사람중심의 생각보다는 실무중심으로 진행한 것 같아 조직사업에 한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장기적 전망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사업 하나 하나의 성과를 내어도 긴 흐름과 계획을 가지고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후에는 사업이 끝나고 그 후속사업에 대한 고민이 깊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투쟁영역>

1) 6.15공동선언 이행

6.15 공동선언을 여학일꾼이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의 내용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시각이 부족하였다. 여성과 통일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의미등에 대해 학습과 사색이 필요한 것 같다.

2) 반가부장제 투쟁

일상적 선전 의식화가 중요함에도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하는 부분은 실지로 '잘 몰라서'이다. 실지로 예민한 여성주의 시각이 부족하고 전문성 강화 역시 필수적이다.

반면, 2월에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사건으로 자체 선전전을 진행한 것은 많이 부족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시기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3) 연대투쟁

동아대 총여학생회에 있어 시기 시기마다 연대 사업장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연대의 틀을 구축해 놓았다.

하지만 일상적 연대가 진행되지 못하고 일꾼들이 연대사업을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등 헌신적이지 못하고 부담스러이 여겼다.

▶▶대중투쟁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 우리의 내용을 많이 고민하면서 함께 결합을 해야 한다. 여학일꾼인 만큼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당연한 과제이다. 투쟁의 명확한 목표를 선정하고 여학우들의 의식지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체 투쟁 흐름을 잘 만들어야 한다.

2. 정세

-전체정세 (민족동아 총노선 참조)

-여성정세

1) 반성폭력 운동

반성폭력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더욱 다양한 곳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신고되고 공개화됩니다.

2003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계급계층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불거져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체(예를 들면 대학, 직장과 같이) 내에서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이며, 공동대응과 연대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여성계의 요구로 1993년에 제정된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성폭력의 정의가 협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가 부족하며, 친고죄만으로 성범죄 고소가 성립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회, 의원입법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에 대한 대응활동이 올해에는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위원회 등 각종 성폭력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기간 진행되어왔던 공동체 문화 속의 성폭력,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더 많은 대학에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2)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 및 여성 학자투쟁

학내 사안과 관련한 반가부장제 투쟁은 여학우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가 크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중요성만큼 다양한 사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몇몇 대학이 아닌 전체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끈질기게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후에는 학내 사안과 관련한 반가부장제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3) 성매매 근절 투쟁

올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인수위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올해 여성분야 우선 실천사업으로 상정하였으며, 상반기 안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어설프게 성매매 실태조사를 진행한 여성부에서 이미 '민간단체와 함께 조사를 하는 등 조사방법과 내용 등을 보완해 2003년부터 다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며, 여성단체 등의 여성조직이나 개별인사 등이 전국 곳곳에 대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벌여갈 것으로 보인다.

니다. 이미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는 일부 밝혀졌지만, 전국적으로 그 실태가 밝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재판의 국가배상 판결에 힘입어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지난 4월 국가와 군산시, 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국가와 포주들의 유착관계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2001년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압력활동 등 입법 추진 활동이 주로 진행될 것이며,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방지법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 대국민 홍보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이 더 높아지고 활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성매매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는 성매매에 대한 의식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에 대한 법정소송투쟁을 진행하며 국가의 성매매 방지 책임을 묻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3년에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투쟁 외에도, 성매매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이 더욱 왕성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 등 구체적 방도에 대한 모색작업은 진행중에 있지만, 2003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활동이 민간차원으로나, 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위헌신청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1년에 2번 공개되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은 소소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4) 호주제 폐지 투쟁을 비롯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투쟁

호주제를 폐지해나가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호주제 1년 내 폐지'라는 공약을 세우면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부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호주제를 3단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호주제 폐지 전 단계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2004년 총선 직후 호주제 폐지 추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단체 학계 법조계 여성부 등을 주축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호주제 폐지 실행시기를 내년 봄으로 정한 것은 각계 의견을 망라하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 총선 전 호주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로 정치권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2001년 상반기 호주제에 의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내린 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었던 호주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이 올해 내려질 전망이다. 호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법률가들이 그 위헌성에 대해서 강변해왔기 때문에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호주제 폐지에 반대해온 세력들이 있으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대책위를 총선 이후에 꾸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정도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체 입법안은 '가족별 호적편제'로, 이제까지 호주제 폐지 시민모임 등에서 주장해온 '1인1적제'와 다릅니다.

친양자제도의 경우에는 도입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 그래왔듯이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호주제'의 폐지 자체가 치권 세력다툼 등에 밀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얼마든지 난관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캠페인과 문화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며, '가족별 호적편제'와 '1인1적제'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며,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토론회와 의원입법 추진 활동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미디어활동도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된 이후, '위헌'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내용을 얘기하게될 것이며, 이를 실제로 폐지하기 위한 의원입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펼쳐게 될 것입니다.

주제 외에도 성차별적인 유족연금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나,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 등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5) 여성 평화·통일운동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격해질 2003년도이기에 여성운동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업과 투쟁이 많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반도 핵위기의 주범인 미국을 규탄하는 투쟁에서부터 반전평화운동, 평화군축운동 등의 투쟁이 각 계각층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등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는 살인미군 처벌투쟁과 관련해 2003년에도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SOFA개정에 있어서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활동도 만들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남북 여성통일대회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여성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활동이 더욱 활발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난해 6·13 총선과 12·19 대선에 이어, 2004년에 진행되는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개발기구의 '2002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의석 비율은 5.9%로 조사가능국 161개국 가운데 겨우 13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의 수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할당제를 포함한 선거 관련 법제도적 보완,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위한 공청회 등의 활동이 이어질 것이며, 정부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2004년 총선을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여성후보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예산확대운동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예산확대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단순히 선거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2004년 총선은 더욱 구체적인 여성민중 속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계기가 될것이기 때문에 전여대협 또한 이를 준비해가야할 것입니다.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2003년에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는 계속될 것이며, 일본 정부에 의한 사과와 배상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03년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합니다.

ILO는 유엔의 다른 기구와 달리 총회 의결절차를 통해 회원국에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진 권고채택 및 조사단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상당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회원국으로서 1932년에 이미 제29조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했기 때문에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29조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사과와 피해자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구속력 때문에 일본측은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하며 안건 상정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측의 로비로 인해 번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비로소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채택되면서 '2003년에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협약 제29조 위반 사례를 다루기로 노동자그룹과 사용자 그룹이 공동선언하기로 했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사용자 그룹의 적극적 협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노·사·정이 단결해 반대 로비를 벌이는 일본측에 의해 다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03년 ILO총회에서 '위안부 의제 채택'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측 노·사·정 대표단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지만 일본에 비해 우리 대표단의 협조관계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유력한 방도가 바로 계속 추진중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

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그 자체로도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근거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ILO 총회는 매년 6월 초에 개최되므로 이때를 전후하여 총회에서 '위안부'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묻혀있었던 일제시대 '기업위안부'와 관련해 당시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위안소' 운영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가 공개돼,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기업위안소 위안부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8) 기타 반가부장제 투쟁

대학 내,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체적 여성의 현실과 관련한 문화운동은 더욱 확대발전할 것입니다. TV, 영화, 언론 등의 미디어에 대한 기동적인 문제제기는 계기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1. 18대 총여학생회 총기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눈높이로 과 여 학생부 건설, 강화하고
1만 여 학우들과의 경쾌한 만남으로 학우들과 소통하며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일대도약을 준비하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눈높이로 과 여 학생부 건설, 강화하자!!!

총여학생회 올 해 핵심사안이 바로 과 여 학생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기존의 사회화 과정에 익숙해있는 우리 여 학우들을 주체로 세우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 가야 합니다.

과 여부건설, 강화야말로 총여학생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1만 여학우와의 경쾌한 만남으로 학우들과 소통하자!!!

총여학생회 구성원인 1만 여학우와의 다양한 만남으로 학우들과 함께 호흡하고, 학우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갑시다.

여 학우들이 진정 학원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학우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줍시다.

자주적 총여학생회 일대도약을 준비하자!!!

단순히 학우들의 편의를 돌봐 주는 곳, 힘든 일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만이 총여학생회의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며, 그 사람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성을 발현 할 수 있게 하는 곳이 자주적 총여학생회입니다.

2003년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으로 새기고 새 시대에 맞는 실천으로 총여학생회의 일대도약을 실현해 냅시다.

II. 18대 총여학생회 11대 과제

1. 학우들과 소통하며 학우들의 의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하자

1) 학우들과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요!!

▶ 그녀들의 세상 엿보기

- 2주에 한번씩 나오는 총여학생회 소식지 발행으로 학우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 수요일비디오방

- 단순한 비디오방이 아닌 과, 단대를 정해서 과 학우들과 함께 여성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월1회)

▶ 설문사업

- 여성문제를 실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식이 나, 여성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사업입니다.

▶ 과장님과 함께 막걸리 토크

- 대의 체계를 통한 의식화 또한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들을 만나면서 여성문제를 풀어냅니다.

▶ 카페를 통해서 학우들을 만나겠습니다.

2) 학우들과 함께 할 중심 내용들은...

4월 - 전쟁, 여성, 성매매

5월 - 여성 노동자, 호주제, 반가부장제

6월 - 여성과 통일

7월 - 여성농민, 기지촌

8월 - 위안부

9월 - 반성폭력

2. 반미, 반전과 6.15공동선언 이행에 여학우들이 앞장서 나가도록 합시다.

2002년을 평가하면서 어느때보다 여성들이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가벼운 한때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으로 전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제일 큰 피해자는 여성, 분단으로 인한 고통도 제일 큰 여성...

2003년에도 반미, 반전, 6.15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1) 반미, 반전의 고삐 놓치지 맙시다!!!

▶ 의식화 사업 진행

-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전쟁피해, 군사주의 문화,
-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하여, 주한미군 범죄, 기지촌 문제...

▶ 반미, 반전 토론회 개최

- 반미, 반전의 내용으로 동아리, 과학회, 소모임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기지촌활동 공개모집

-학우들과 함께 가는 기지촌활동입니다.

4월 전쟁과 여성에 관한 의식화 사업과 함께 기지촌여성문제를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중적인 모임으로 7월 즈음 있을 기지촌활동을 준비해 나갑니다.

4월 에 기지촌활동 준비단을 발족하고 그에 맞는 활동들을 흐름에 따라 진행합니다.

(흐름은 추후 제출)

2) 6.15공동선언 기념사업을 진행합시다!!!

▶ 6.15기념주간 설정

다양한 선전, 거리전을 토해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 세기고 여학우들의 가슴에 공동선언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 이북여성과 민족동아 1만여학우의 경쾌한 만남

이북여성들을 담은 사진과 우리 여학우들의 사진과 인터뷰를 게시하는 장입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북여성들... 우리 여학우들은 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우들을 만나면서 알아봅시다.

▶ 금강산 여름 모꼬지 여학우들과 함께가요!!!

3. 호주제 폐지, 성매매, 군사주의 문화반대 ...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반가부장제 운동을 잘 진행합시다

대학내 가부장제와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및 토론을 생활운동으로 가져갑시다. 또한 생활운동 속에서 대학내 여성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모색도 학우들과 함께 진행합시다.

이런 투쟁은 여학생운동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지난해 여러대학에서 공동체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올해는 더욱 전면적으로 제기해 나가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대학내 반가부장제 및 여성문화운동을 벌여갑시다.

1)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 ▶ 호주제 폐지를 위한 부모성 함께쓰기
- ▶ 대동제때나 기타 학회 단대행사때 가부장적인 행태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토론에 불이고 개선하도록 합시다.
- ▶ 여성 스스로가 가부장적 문화에 너무 순응하지는 않는지 작은 스티커나 유인물을 만들어 생각 할 수 있도록 합시다.

2) 반가부장제 문화제를 진행하자

- ▶ 5월 반가부장제문화제
- ▶ 기지촌활동 공개모집

4. 구체적인 내용으로 반성폭력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하자!!!

1) 학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성폭력 신고를 장려하는 것, 성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상 생활에서의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의 사례들의 학우들에게 알리고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관성적으로 여기지 말고 좀더 세밀하고 알차고 기획 적인 내용으로 의식화를 잡아서 꾸준히 진행합시다.

- ▶ 00과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2) 자치규약, 생활문화운동 등의 구체적인 방도를 가지고 학우들이 직접 진행하는 반성폭력운동을 만들어 냅시다.

▶ 성폭력관련 일들은 총여학생회의 전담일 처럼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활문화운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성의 주체이고 감시자임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 학우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반성폭력 운동을 직접 할 수 있게 총여학생회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체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학우들도 부담가지지 않을 정도의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규약을 만듭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규약은, 학칙처럼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각급 학생회 및 학우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구성원 내에서 약속처럼 합의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하여, 이것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반성폭력운동을 그 단위 안에서 작지만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반성폭력 인식을 높여내는 과정으로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3)학칙 개정 투쟁을 대중적으로 진행해 냅시다.

학칙개정투쟁의 흐름을 잘 잡는 것이 최 우선입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위에서 얘기된 올해 투쟁의 방향과 방도들은 모두 학칙 개정운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우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학교측과의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성폭력학칙개정을 위한 연구사업진행

▶ 성폭력 학칙개정을 위한 과, 단대 간담회

▶ 학우,행정과 함께하는 공청회

★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해서 학우들과 폭발적인 투쟁을 가져나가는 것도 좋은 방도로 제기됩니다.

5. 여학우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뽐때나게 진행하자!!!

1) 복지기금 3%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학생 휴게실의 개보수 및 여학생 화장실의 파우더대 설치 등 행정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당위성면에 있어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실제 여학우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복지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임합시다.

]

▶ 여학생휴게실 개 보수(침대, 파티션, 쇼파등)

▶ 우산빌려주기

▶ 여성학 관련 책, 비디오

2) 여학생휴게실 관리자

여학생휴게실을 꾸준한 활용을 위해서는 전담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자를 두는 것에 있어서는 삼자협의회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과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를 총여로 묶이는 방도도 생각해 보았지만 교학과에서 장학생으로 묶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2학기때부터는 관리자를 꼭 선출할수 있도록 합시다

▶ 관리자 선발의 꾸준한 제기

▶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4) 땡가땡가

▶ 생리대자판기 확충 (예대, 교수회관)

▶ 파우더대

▶ 취업 강좌

6. 기층건설사업을 통해 건설된 단위들과 일상적인 소통으로 조직적인 성과가 남도록한다.

1) 단대 여학생회(국)과의 사업

▶ 경영대 - 소모임 허심탄회(이하 허심)

일주일에 한번, 허심 종례 시간에 참석하여 총여학생회 사업을 풀고 토론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허심 학습에 참여하고 여성 정세 관련 선전을 준비합니다.

한달에 한번, 총여와 함께 영상물 학습을 하고, 두 달에 한번, 역사의 뒤편길에 숨겨진 여성을 논하는 날을 삼아 허심과 함께 역사 기행을 갑니다. 4월 말 부터는 총여 소식지 준비에 참여 하도록 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새내기들이 선배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허심과 총여의 '콩과 콩깍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경영대에 올라가서 돌봐주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요)

3월 - 총여 해오름식 자봉단 활동을 제안.

4월 - 부경 대학생 축전을 내용으로 한 '허심탄회 신문' 만들기.

5월 - 봄 농활, 모꼬지 등을 맞아 성폭력 없는 공동체 문화를 위한 내규 만들기 운동을 진행. H출범식과 전여대협 출범식을 맞아 함께 율동과 노래 배우기 (전여대협 진군가, 힘모아 힘을줘 등등)

허심이 찍는 새 발자욱으로 부터 한 걸음씩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 법대 - 현재는 여성 국장 밖에 없지만, 확대 운영위와 농활 기활 등의 활동 뿐 아니라 총여가 적극적으로 부민동 사업을 진행 할 때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여성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여 소식지를 매개로 최소한 한달에 두, 번은 법대 강의실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총여 출범식과 전여대협 출범식에 함께 합니다. 한달에 한번은 여성국장을 중심으로 여성국의 소식도 함께 발굴하여 심도록 합니다.

▶ 체대 - 체대 여휴의 복원 작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무용학과나 타과에 흩어진 여학우들을 묶어서 단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을 진행 합니다. 확대 운영위와 간담회를 통해 농활과 기활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2) 단대 이하 과여부장과의 사업

▶ 과여부장의 사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줍니다.

▶ 일주일에 한번 과방을 찾아 가거나 총여로 오게 해서 여성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선전을 준비하고 신문 작업에 참여 하도록 합니다.

▶ 과여부와 함께 수요비디오방 사업을 진행합니다.

7. 확대운영위 개최로 총여학생회와 과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의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적어도 한달에 한번 주기적인 확대 운영위를 통해 과여부장들 과의 친분을 쌓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에서 애매모호한 자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여와의 상시적인 만남과 토론으로 과장만큼 학우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사람임을 일깨워주도록 합니다.

8. 더많은 학우들을 총여단위를 묶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하자

1) 민족동아 여자간부학교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 여자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성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놀이도하는 공간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자간부임을 인식케하자

2) 여성학 소조 꾸리기

여성학에 관심있는 일군들을 대상으로 학습조를 만들어서 공부하는시간을 만들자!!!

9. 총여학생회 일군들의 공동생활을 활기차게 꾸리자!

1) 조,종례의 정착화

학우들을 잘 만나기 위해선 아침생활도 잘되어야겠죠???

아침에 조례로 하루를 계획하고 일정을 정리하여 하루를 계획성있게 보내고, 저녁 종례로 하루를 마감하게 정리하고 서로의 고민들도 허심하게 이야기해봅시다.

2) 조직운영도 체계적으로...

월 -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상집

화 - 전원회의

수 - 확대운영위

금 - 주 평가일

10. 자주적 여학생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군들부터 여성학을 심도있고 즐겁게 공부하자!!!

1) 개인학습

-내용 : 전여대협에서 제출하는 책

-언제 : 등하교시 차안에서 읽어봅시다~~

2) 소조학습

	상집	소조 (부회장조 / 사무국조)
3월	섹슈얼리티강의	새여성학강의
4	섹슈얼리티강의	새여성학강의
5	섹슈얼리티강의	새여성학강의
6	위험한 여성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7	위험한 여성 , 한국여성운동사	개정판 여성학 강의 (새여성학 강의와 겹치는 내용은 제외하고...)
8	페미니즘 이론과 정치?	섹슈얼리티 강의
9	” (책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섹슈얼리티 강의
10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깊이있는 토론을 중심으로 가져갑시다.)	한국여성운동사

3) 전원회의 학습

전원회의를 마치고 영상학습을 한다. (내용은 아래 첨부)

4) 확대 운영위 학습

확대운영위 전이나 마친후 간단히 학습을 진행한다. (4월 쯤부터 할수 있겠죠?)

내용 : 영역별로 여성문제와 관련한 기초적인 간단한 문서 또는 정세에 맞는 투쟁과 관련한 내용. 또는 회의가 아주 짧을 경우에는 영상물이나 여성영화를 보고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 성폭력, 호주제, 성매매, 위안부, 기지촌.....

메이데이 즈음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등등

영상물 또는 여성영화

11. 총여학생회 사업만이 아니라 연대단체와의 상시적인 연대사업으로 사업의 폭을 넓혀나가자!!!

1) 연대단체 방문사업

기존의 사하 여성회 뿐 아니라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노조를 자주 방문해서 친밀감도 높이고, 총여학생회 사업과 연대단체의 사업을 함께 진행해서 사업의 폭을 높이고 록한다

2) 여성농민회와의 연대

▶ 연대를 돈독히 하자

우편이나 메일 전화로 자주 교류를 한다.

▶ 여성농민반 활동

사전교양을 진행한다

분반활동 주체를 반드시 마련한다.

창조적인 커리를 준비한다.

전농활대원이 함께 분반활동을 한다

▶ 통큰 사업을 진행해서 성과로 남긴다

3) 연대사업을 바탕으로 학우들과 함께할수 있는 사업들도 고민해본다

▶ 기지촌활동 (7월)

▶ 성폭력 상담원교육 (7월)

Ⅲ. 18대 총여학생회 11대 주요사업

1. 개강, 새내기사업
2. 3.8여성주간
3. 총여학생회 출범잔치(4월4일)
4. 총여학생회 L.T (4월4~6)
5. 반미 토론회(4월말)
6. 반가부장제 문화제 (5월중순)
7. 6.15기념주간
8. 금강산모꼬지
9. 여름농활/기지촌활동 (7월)
10. 전여대협수련회 (7월 중순)
11. 여간부학교 (8월말)
12. 총여학생회 대동제

★주요사업들은 일정에 맞게 사업계획이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단대(과) 여학생부(회) 1년나기는 어떻게?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내용입니다.

과의 실정에 맞게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우들 모두의 인식을 확 바꿔보겠다는 욕심보다는 여유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사업목표

1. 여성문제를 알려내고 여학생부 주위로 여학우를 묶어낸다.
2. 여성문제, 특히 학내와 과에서 있는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남학우, 여학우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한다.
3. 과학생회를 중심으로 남학우 여학우가 함께 공동체 문화, 토론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사업과제

1. 과여부의 올바른 자리매김
2. 과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
3. 사회의 여성의 삶을 알아가기

●사업내용

1)정기적이고 꾸준히 해야할 사업

▶여성문제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가기 위한 대자보 쓰기

방법 : 여성문제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가기 위한 자보쓰기

장소 : 과학우들이 많이 모이는 곳(전공강의실, 과학생회실 등)

내용 : 월별로 한가지 주제를 정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시기별로 이슈화된 내용도 좋겠다. 우선 자료수집, 정리하고 여부원들과 토론해보고 그 결과물을 낸다. 예를 들면 성폭력의 원인 및 실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간다든지, 이북여성 바로알기든지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든지 등등)

▶여학생부 소식지 발간

내용 : 여학생회 사업공유, 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소식들, 학우들의 진솔한 글, 내가 느끼는 여성문제, 함께 고민하는 여성문제, 학우들 생일 챙기기 등

▶탁아소 방문

나도 예비 여성노동자! 우리도 커서 아이를 낳을텐데 탁아문제는 나의 문제, 정기적인 탁아소 방문으로 과학우들과 여성노동자의 2중고통을 알아보자. 굳이 탁아소가 아니더라도 뭔가의 실천활동을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만들어가면 좋다.

▶설문조사

과여부에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한 몫 단단히 할 설문조사는 소식지 발행에 맞춰 과학우들과 과 여부 사업도 평가하고 의식도를 묻는 좋은 방법

▶책돌려읽기

흔히들 여성학에 관련된 도서는 잘 읽지 않는데 여학생부에서 정기적으로 여부원들과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감상글을 적어 게시하고 학생회실 안에 비치하여 돌아가면서 읽어본다.

2)기획하여 진행하는 사업

▶새로배움터와 수련회 때 : 과여부 소개,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MT때 여부내용 잡기 등

▶여학우 대면식 : 여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불어 학생회로 단결을 꾀할 수 있는 자리
따로 대면식을 하기 어려우면 수련회 때 1시간쯤 자리를 내는것도 좋다.

▶과의 날, 과 대동풀이 : 1년 사업을 학우들과 대중적으로 평가하고 전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겠죠.
인식극, 기획거리, 여학우 체전 등
여학우팔씨름대회, 남학우과일짜깁기대회 등 쉽고 재밌게 할수 있는 내용들도 하면 좋다.

▶학술제, 세미나 , 작은 토론회

방법 : 과내에서 외부강사를 섭외하고 이후 토론

내용 : 여성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기 : 한 학기에 한번정도

▶비디오 상영

시기 : 한학기에 두 번정도

방법 : 전공강의실을 빌려 수업 끝난후 함께 토론. 미리 여부원들끼리 영화를 보고 감상문이나 영화소개 글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학우들에게 나눠 주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다.

▶농활 - 여성농민과의 연대활동

3)사람 사업과 관련된 사업

과여학생회(부)도 어느 사업, 어느 운동과 다를바 없이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 가지 사업과 투쟁을 잘 진행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닳을 때 그 다음해의 주체 즉 사람이 남지 않는다면 실제 성과가 계승발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고민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1년 초부터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1년내내 진행해야지 그 성과들이 축적되어 사람을 남길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을 꾸릴 때 : 자신감을 가지고 만난다.

일단 한 두명이라도 꾸려지면 모임을 한다.

모임은 정기적이고 꾸준히 진행한다.

여부원들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준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유를 가진다.

▶사람이 꾸려지면 : 여성문제와 관련된 학습, 토론진행

활동적이고 성과점이 남게 진행한다.

활동내용은 꼭 학우들에게 공개하여 학우들에게 여부 사업도 알리고, 여성문제 고민

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부원들에게도 보람을 준다.

▶과여회(부)원들 또는 함께 묶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주자

- 학습주체 : 학습할거리를 고민하고 학습내용에 대해 학우들 의견수렴을 하는 주체
- 선전주체 : 선전할거리를 고민하고 선전내용 초안을 작성하여 다함께 선전을 진행하여 학우들에게 알려내는 주체
- 정보통신주체 : 진행하는 사업과 투쟁을 과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과여학우들 이메일등을 관리하는 주체
- 기타 : 총무, 여학생회(부) 비품관리주체 등

4. 성역할 바꾸기

20일(대신동), 21일(하단)

도전 요리왕

여학우 팔씨름 대회

5. 강연회

- 주제:

- 20일(대신동), 23일(하단)

6. 문화공연 (기획안 추후 제출)

- 22일 하단에서,

- 오름 공연 설외, 동아리 노래공연 설외

7. 거리전

- 선전극에서 고민

★ 구체적인 일정

20일(대신동에서)

호주제폐지 버튼 나누기

도전요리왕, 여자팔씨름대회 - 낮1시

성폭력 강연회

21일

호주제폐지 버튼, 서명운동

도전요리왕, 여자팔씨름 대회 - 낮1시

여성영화제

22일

호주제 폐지 버튼, 선언운동

문화공연

여성영화제



5월 여성주간 계획서 (토론회 가안)

- 반가부장제에 대하여...

가부장제! 우리 사회 안에서 오랫동안 남성애 의한, 권력에 의한, 돈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 해온 말입니다.

지금은 21세기,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를 살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가족을 마치 우리의 전통이라 여기며 여성운동가들을 전통을 깨부수려는 퇴짜맞은 여인 째름으로 여기는 풍토...

직장, 학교, 사회 그 안에서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여성들...

여성을 한 인간으로 보기 보단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선들...

그리고 거리로 내몰리는 여성들...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길들여져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마치 군다같은 권위적인 선후배사이...

더 이상 우리 여성을 사회에서 소외 시키지마라!!!

여성이어 세상속으로 ...

★ 여성주간 설정의의

1. 호주제, 성매매, 성폭력문제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2. 학내에서 일어나는 반가부장적인 문화들을 꼬집어 내서 학우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
3. 공동체 문화 속에서 소외된 여학우들을 적극적인 활동을 일으키는 계기

★ 여성주간 기치

- 다함께 고민해 봅시다!!!

★ 여성주간 언제 : 5월 20, 21, 22 일

★ 여성주간의 중심내용

1. 호주제 폐지
2. 성역할 바꾸기
3. 학내 성폭력 반대!!! - 학내 교수 성폭력에 대하여...
4. 성매매 반대

★ 여성주간의 상

1. 대중적인 문화제를 만든다.
2.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준비단 중심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준비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직적인 성과를 이룬다

★ 여성주간 준비단 체계

1. 준비단 단장

2. 실무주체

- 자부단

- 선전단

3. 단위별 주체마련을 위하여...

- 확대 운영위를 단위 주체로 하고 운영위가 없는 단위는 임시주체를 세운다.

: 간담회를 통한 제안 - 자대, 생명대, 공대, 인문대, 사회대

4. 준비단 공개모집

★ 여성주간 준비흐름

4월말까지 - 준비 계획 완료

5월 10일 까지 - 준비단 모집 완료, 교양

5월 셋째주 - 준비단 활동, 실무준비 완료

★ 기획안

1. 호주제 폐지를 위한 부모성 함께쓰기 생활 문화운동

- 여성주간 내내

- 버튼 나누기

- 서명운동

2. 나는 얼마나 가부장적인가?

- 여성주간 한 주전에 준비단에서 단대별로 진행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

- 설문조사, 스티커 설문

3. 여성 영화제

20일 -

21일 - 학내에서 "말예"

22일 -